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사진 : 김용배 일풍소(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연중 제20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56, 1, 6~7

화답송 시편 67(66), 2~3, 5, 6과 8 (©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1.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2.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3.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

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로마서 11, 13~15, 29~32

복음환호송 마태 4, 23 참조

◎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태오 15, 21~28

영성체송 시편 130(129), 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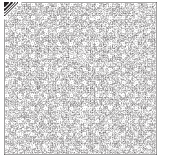


스마트폰에서 **교구소식**을

QR코드를 사용하면 가톨릭부산 모바일 웹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 '가톨릭 라이프 부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http://www.catholicbusan.or.kr>



예수님의 쌍방소통



이번 주일 복음에 등장하는 가나 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올면서 매달립니다. 이 여인의 말은 자신의 딸내미가 호되게 마귀가 들려, 너무 불쌍하답니다. 그래서 딸내미 치료를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외면을 하니 마음에 갈등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을 어머니가 아닙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계속 호소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소통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을 확 깨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남성 가부장주의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득권을 극복하는 일이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여인과 만났을 때 처음 획일적인 표현으로 보인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압박적이고 독선적인 말 행동의 태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낸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마귀 들린 딸내미의 어머니가 마주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분명 예수님의 일방소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쌍방소통입니다. 예수님의 가식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성찰케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 그 엄

마의 심정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기쁨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여인을 다시 대접한 것이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대화의 쌍방소통인 오늘 복음 내용은 다시금 그리스도 신자들을 감동시키며 성찰케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온갖 삶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쌍방 소통의 대화 장애가 되게 만드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해 나가야 할 지 기도, 묵상합니다.

윤 희 동 바울리노 신부
빈민사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생태적 회개를 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투신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미를 묵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담화문 바로보기

어떤 서글픔

지금 여기

자주 양치질하지만
치아는 점점 누러지고
냄새도 심해지는 거 같고.
한때 젊어 봤으니 늙는 거야 괜찮은데
젊었을 때보다 더 자주 씻고도
냄새나는 건 좀 억울하군요.
늙는 게 내 잘못이 아님에도
이래저래 눈치 보게 됩니다.
별다른 욕심 없이 그저
단정하고 깔끔하게 늙고 싶었는데
이제 보니 이거야말로
큰 욕심인 듯합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8.21(월)~22(화)
윤희동 신부(빈민사목)

8.23(수)~26(토)
이광우 신부(가야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2340
월~목 12:15~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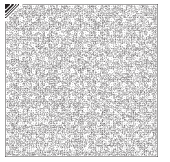
8.22(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이기대성당 대건희

신부들의 수다
8.26(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김병희, 김수환 신부

스마트폰에 <팟빵> 앱 다운로드해서
언제든 팟빵으로 <신수다> 들으세요!
www.podbang.com



레지오 마리아 기도



박 주 영 첼레스티노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레지오 주회는 이 기도로 시작됩니다. 직장 퇴근 후 혈레벌떡 주회에 참석하는 날이 많은 저는 시작기도 중반쯤을 지나 묵주기도를 바칠 때면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오곤 합니다. 때론 하품도 나와 급히 손으로 막거나 저절로 위아래로 끄덕대는 고개의 동작에 화들짝 놀라 움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면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하고 ‘까떼나’를 바칠 쯤이면 머리와 마음이 차츰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회 때도 그랬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성모님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의 한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께선 18살에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18살의 소녀가 ‘어마무시한’ 알림을 겁 없이, 흔쾌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지요.

“내 영혼이 +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라고 노래하시며 말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안배에 의해 이뤄진 신비로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알량한 이성의 작동, 계산은 ‘본인의 삶, 미래가 걸린 일인데 18세 소녀가 그렇게 하기 쉬운 건 아니었을 것’이라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어 ‘사람은 이성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감성도 있고 심성, 영성도 있다. 이성으로 이해, 납득되진 않지만 심성과 감성, 영성이 어우러져 이뤄진 신비아닐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우린 성모님을 통해 이성을 넘어서는 감성, 심성, 영성을 배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는 나름의 번뜩임이 왔습니다. 동양의 성리학에서도 ‘주리설(主理說)’, ‘주기설(主氣說)’이 논쟁을 했습니다. 성모님을 보면서 인간은 ‘주리’와 ‘주기’가 합해진, 아니 그걸 넘어서는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총아인 ‘AI(인공지능)’는 이성만으로 볼 때 인간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 확대돼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의 도래에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선 이날 저의 불안을 해소할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이 튼튼한 믿음을 통하여 삶의 십자가와 노고와 실패 속에서도 평온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렵니다...” 이렇게 ‘마침기도’를 할 때쯤이면 제 생기는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부산취재본부장 park21@chosun.com



하나 됨을 향한 젊은이들의 노력

엄청난 더위는 사람들을 실내로 몰아넣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나 보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기가 겁이 날 지경이다. 그럼에도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랑스러움을 넘어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얼마 전에 청년들이 일일호프를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고 한다.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공동체에는 기쁨을 드리고 자신들은 하나 된 모습으로 더 재미난 청년회가 되고자 한다. 더불어 어려운 분들에게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아랑곳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 그 마음이 가늠하여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한다.

몇 주에 걸쳐 포스터를 만들고 티켓을 판매하고, 주일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대견하다. 호프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부터 청년들은 선후배가 하나 되어 땀을 뻘뻘 흘리며 책걸상을 나르고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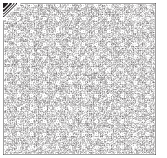
모습에서 비장한 각오를 느낀다. 다른 일을 할 때보다 더 자발적이고 진지한 모습들이다. 지하에서 하자는 의견과 성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실외에서 하자는 의견 가운데 실외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밤늦은 시간까지 준비를 마치고 다음날을 기약하고 헤어진다. 그런데 당일의 날씨 상황이 더위로 인해 도저히 야외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실외에 준비한 모든 것을 다시 옮기고 지하에서 행사를 해야 한다. 늦었지만 그나마 준비할 시간이 있어 다행이다.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한쪽에서는 한숨을 내쉬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하다.

우여곡절 끝에 일일 호프는 성황리에 마쳤다. 청년들의 정성된 준비와 선배들의 도움 그리고 공동체 어른들이 모아준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에 온전히 기대어 최선을 다해 준 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김명선 신부(전포성당 주임) johnkms@hanmail.net

금 곳기에 대한 기억

이 인 경 안젤라



어린 시절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은 한국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10대가 되어 세대 간 언어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도무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러냐?” 어른들과 저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20대 시절 남학생들과 어울리고 연애를 하며 ‘남자들의 언어’는 ‘여자들의 언어’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남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3가지로 귀결됩니다. 응, 아니, 침묵. 남자들과 저 사이에 금이 생겼습니다. 30대에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사는 동안 지역의 언어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농담에, 지역 문화가 다른 저는 어디서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저 사이에 금을 그었습니다.

40대인 지금 엄마, 직장인, 아내로 살며 우리 모두가 각자 서로 다른 자기만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탐욕스럽다고 하고, 그들은 제게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자고, 무관심이 상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관심이라는 금을 또 긁습니다.

교황님은 자꾸만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머리로 받아들이집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제 이익을 따져봅니다. ‘나 하나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마음에 계속 무관심이라는 금을 그어갑니다. 제 세계엔 오직 저뿐입니다.

그래도 가끔 이런저런 의구심이 생겨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무관심이 최고일까? 한 사회가 행복해지는데 경제만 해결되면 될까? 더 중요한 무엇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래서 저는 여기 사회교리학교에

왔습니다. 사람, 자연, 지구는 모두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빚어내신 피조물이며 예수님의 지체라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이들, 오염된 자연, 파괴된 지구는 창에 찢리신 예수님의 상처가 아닐는지요. 돈으로 돈을 버는 이들을 부러워하며 노동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해온 저를 발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금 너머를 바라봅니다. 무관심이라는 금을 지웁니다.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현실에서 제대로 세우는 방법은 복음의 지침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운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 교과서에서 배우는 멋진 문장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발을 뗐습니다. **좌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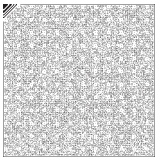


천주교 신부님들의 신앙심은 잘 모르겠지만, 애국심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있어야, 신앙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자긍심이 없이 어떻게 신앙인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 친구에게 선물 받은 성조기가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교포 성당에 갔다가 한 할아버지에게서 성조기가 그려진 손목시계를 차고 나라 망신다 시킨다며, 조국애에 대해 일장 연설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기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특히 다른 나라에 와 있을수록 절실해집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인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갈릴레아라는 인간적인 출신만을 절대시하며 구세주는 결코 갈릴레아 촌 동네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레아라는 눈에 보이는 곳을 넘어서 “근

원”, 바로 하느님에게서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느님으로부터의 기원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생명에 대한 모든 착취와 폭력은 바로 우리의 근원을 단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멀리하는 적들도 다 하느님에게서 온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거리에 풀 한 포기, 벌레 하나, 공중에 새들도 모두 하느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인종과 국적을 넘어 우리 모두를 하느님의 나라에 다시 모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권순호 신부(주례성당 주임) albkw93@hotmail.com**

제40회 청소년 신앙축제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지난 8월 12일(토)~13일(일) 푸른나무 교육관 및 부산 KBS홀에서 ‘제40회 청소년 신앙축제’가 90개 본당 90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다. ‘RE:FESTIVAL’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신앙축제 테마파크(12일), 청소년 신앙축제(13일)로 나눠 진행되었다. 본 행사인 축제날에는 14개 팀이 참가한 성가제, 새 사제 축하 공연, 축제미사, 부스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성가제는 예전 ‘성가 및 포크송 경연대회’, ‘고등부 연합회 예술제’, ‘청소년 성가제’ 당시

제7회 가톨릭 문학캠프



지난 8월 12일(토) 오륜대 명상의 집에서 열린 이번 문학캠프는 문인협회 회원 및 문학 지망생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은교 시인과 김성중 추리소설가의 특강, 백일장 수여, 파견 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산가톨릭문인협회(지도 : 이성주 신부, 회장 : 배계선 브루노) 주관

2019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



7월 29일(토) 은혜의 집 / 성소국(국장 : 김태형 신부) 주관



에 불렀던 곡을 선정하여, 현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재해석하여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6지구 다모여섯 팀이 어울림상, 2지구 Seastar 팀이 한목소리상, 2지구 젊은이지구 팀이 퍼포먼스상, 1지구 One More Time 팀이 푸른나무상, 10지구 시나브로 팀이 부꿈상, 4·11지구 J.Y.S 팀이 인기상을 수상했다.

축제미사를 주례한 김대성 신부는 미사 강론 중에 “하느님 안에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더 큰 힘을 얻으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사목국(국장 : 김대성 신부, 담당 : 김수환 신부) 주관

메리놀병원, 인공신장실 및 직원 식당 축복식



7월 28일(금) / 메리놀병원(의료원장 : 노영찬 신부, 병원장 : 손창목 가브리엘)

김정성당, 교육관 축복식



8월 6일(일) / 주임 : 김근배 신부, 회장 : 강현인 사도요한

이주노동자, 여름 피정



8월 6일(일) 울산 관성해수욕장 / 주관 : 부산, 김해, 울산이주노동사목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8.21(월) 10:00 목주기도, 10:30 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 629-8760(성소국)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울산)

· 8.25(금) 13:30 목주기도, 14:00 미사
· 월평성당 / 문의 : 629-8760(성소국)

제4기 성모어머니학교

· 10.19~11.16 매주 목 10:00~15:00(총 5주 과정)
· 교구청 5층 강당

접수 : 8.16(수)~9.30(토),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종교 무관)
문의 : 010-2202-0470, 010-8822-1993

제9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21~11.18 매주 토 15:00~21:00(총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접수 : 8.16(수)~9.30(토),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아버지(종교 무관)
문의 : 010-6408-6111, 010-3460-0696

화명성당 관리장 구함

자격 : 운전(1종보통), 기타 기능자격증 소지자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문의 : 341-7770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시각장애인교회 후원회 미사

8월 후원회 미사는 쉽니다
문의 : 464-3909

해양사목 월미사

· 8.21(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주례 : 이균태 신부 / 문의 : 464-2707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8.25(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미리보는 전례꽃 및 월미사 및 특강

· 8.28(월) 10:3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4554-1173, 010-5064-6512

부산ME 소개모임

· 8.21(월) 20:00 · 남천성당
350차 ME 주말 : 8.25(금)~27(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010-2703-0155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교구평협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8.26(토) 09:00(11:00 미사) / 개인 도시락 지참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모 순례
기차 :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 문의 : 622-5588(평협)

성서 그룹 공부반 모집(창세기 직장인반)

· 9.2(토)부터 매주 토요일 14:00~16:00
· 초창 성서교육원 3층
문의 : 465-8162, 467-0761(성서교육원)

여성단체장 및 상담봉사자 교육

· 9.4(월) 10:00~16:00 · 교구청 5층 강당
주제 : 복음의 기쁨 / 강사 : 윤기성 신부
문의 : 441-1522(여성연합회)

평신도선교사회

재학생과 동문의 만남 : 두번째 이야기
· 9.3(일) 14:00~17:00 · 신학원 대강당
특강교수 : 엄철호 신부 / 대상 : 신학원생, 동문
문의 : 462-0334(평신도선교사회)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교구 철야기도회
· 8.25(금) 22:30~다음날 04:00
강사 : 송재현 신부
- 젊음이 성령기도회
· 8.21(월) 19:30 전포성당
· 8.23(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회 / 점심 제공
· 8.23(수) 11:00 (버스안내카드 참조)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8.24(목) 20:00~23:00 / 강사 : 이광우 신부
- 100단 목주기도(미사, 안수) / 점심 제공
· 8.21(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영성심리상담사]
교육 : 9.4~12.18 월, 화, 목 10:00~13:00
수강료 : 45만원, 총 6과목(과목당 10만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평생교육] 노인을 위한 몸 마음 튼튼 건강교실, 부모와 전문가를 위한 언어발달 아카데미, 학령기 언어발달의 이해 [그리스도교와 인문학] 라틴어 중급(Lectio Progressa), 어르신들을 위한<천주교 요리 문화> 풀이, 이콘 그리기(기초반), 책과 영화를 통해 나와 당신 들여다보기, 화가가 만난 하느님
접수 : 8.1(화)~31(목)
개강 : 9.4(월)부터 과정별 해당요일
문의 : 510-0951~3, edu.cup.ac.kr

소화영아재활원 생활재활교사 모집

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마감 : 8.30(수) / 제출서류 : 홈페이지 공고 참조
문의 : 644-1729, www.sohwa.or.kr

시각장애인교회 상설교회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 464-3909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교회소 운영

· 매주 월, 금 14:00~15:30 / 문의 : 515-0030

선종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3.8.21. 안달원(베드로) 신부님
1988.8.22. 김준필(아우구스티노) 신부님

부산교구 공원묘지 **하늘 공원**

† 미사 : † 셔틀버스 운행
매주 토요일 09:00 남천동 교구청
오전 11시 3층 경당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 운영 시간 :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시편 96.1)

2017년 부산가톨릭신학원 2학기 심화과정 모집

1 일 시 9.8(금)~12.1(금) 매주 금요일 14:00~17:00(총12회)

1 장 소 부산가톨릭신학원(부곡동 부산가톨릭신학대학)

자 격 / 신학원 졸업생 및 수도자 **접 수** / 8.31(목) 까지

수업료 / 20만원(수도자 20% 할인) **문 의** / 051-464-7591(신학원 교무실)

<p>(주) 씨피여행사 1.8/29 이스라엘, 이태리 12일 455만원 2.9/10 동유럽 성지순례 13일 395만원 3.1/2 이스라엘, 이태리 11일 455만원 4.4/2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p>	<p>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p>	<p>인성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대상 :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612-5611 insungtherapy.modoo.at 남천동 부산은행(광남지점) 3층</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 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p>	<p>제주도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p>
<p>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 도로연수 전문강사 : 김 정 근 (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p>	<p>루르드/파티마 성지와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429만원 10/11 (신부님 동행) 안 지 원 (스테파노) 070-4086-0207 www.catravel.co.kr</p>	<p>법무법인 율강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 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p>	<p>삼진커튼 수입커튼, 암막커튼, 우드브라인트, 콤비브라인트 이 영 복(요셉) · 김 미 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p>	<p>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의 이상 열(베드로) 516-0888</p>

음악교육원 마니피캇오르간반주단
파이프오르간연주회

· 8.27(일) 16:00 · 이기대성당
문의 : 010-6513-7335, 517-8241~2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최영희오르간클래스)

음악교육원

정규과정 2학기 개강 및 청강생 모집

개강 : 9.5(화) 주간 10:30, 야간 18:50
과목 : 전례음악, 폴리포니, 음악이론, 발성법, 합창
문의 : 517-8241, 2, www.bcmusic.or.kr/mec

농아인선교회 9월 수화 교실 개강

신청 : 9.10(일)까지
[기초반, 중급반] 개강 : 9.5(화) 19:00, 주 2회(화,목)
3개월 과정 / 수강료 : 5만원(교재비 별도)
[고급반] 개강 : 9.6(수) 19:00, 주 1회(수)
3개월 과정 / 수강료 : 7만원(교재비 별도)
· 부산가톨릭농아인선교회, 복지회 2층
※ 수강 인원 정원 미달시 폐강 될 수도 있음
문의 : 751-8693, 010-8001-4435(심은경)

제5기 영성심리상담 강좌(2학기 심화과정)

· 8.28~12.18 매주 월요일 14:00~17:00
· 가톨릭센터 3층 / 강좌료 : 15만원(교재 무료 제공)
강사 : 이상훈 박사, 조옥진 신부
특혜 :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상담학회 수련과정 인정
과목 : 가족상담 및 치료, 마이크로카운셀링기법, 사다나 명상요법, 집단상담, 상담실습 / 문의 : 463-7866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간병경력자, 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자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 개인간병사
문의 : 933-7042, 010-3572-7045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층)

용도 : 사무실(7층 20평)
문의 : 462-1870(행정실)

교육 · 모집 · 기타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8.26(토) 11:00(범일성당 입구 김안과 09:00 출발)
·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 010-3355-4997

성분도봉사의집 기도회

용당 봉사의집에서 운영하던 기도회는 8.29(화)
방학이 끝나더라도 없습니다 / 문의 : 635-2433

렉시오디비나와 향심기도 하루피정

· 8.27(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8.23(수)까지 신청 / 15:00 주일미사(왕신부 집전)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 9.5~2018.2.25 매주 화요일 14:00~16:00
야간 - 매주 화요일 19:00~21:00 (6개월)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 15만원(분납 가능)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이신 성심
문의 : 634-4845, 010-9620-4820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마음의 영성학교 3기

<마음의 영성>을 배우는 영성 아카데미
2학기 : 시편, 여정자 마음듣기
· 9.5~11.28 매주 화요일 14:00~16:20
문의 : 581-3114(성심영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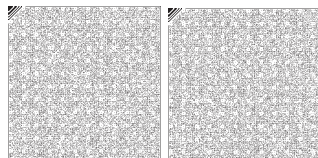
행복한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수강자 모집

교육 : 9월~12월 매주 목요일 10:00~12:00
· 알로이시오 힐링센터 교육실
접수 : 8.21(월)~31(목), 선착순
신청 : 알로이시오 힐링센터 홈페이지
http://www.alhealingcenter.or.kr
대상 : 미혼, 기혼의 성인남녀 / 문의 : 250-5209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 8.26~27, 9.23~24, 10.7~8, 10.14~15,
10.21~22, 10.28~29, 11.25~26, 12.9~10,
12.16~17, 12.23~24, 12.30~31
토 14:00~일 16:00 / 피정비 : 5만원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 유덕현 신부 / 문의 : 010-2816-1986

시간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묵상회(9차)

· 9.16(토)~17(일) · 영성의 집
문의 : 010-3847-2796

심리상담 강좌 <위니켓>

· 9.4~11.20 매주 일요일 10:00~12:15(10주)
내용 :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발달과정, 부모자녀
관계회복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전교가르멜수녀회 재속회원 모집

대상 : 수녀회 은사로 기도와 활동의 조화를 이루
기 원하는 남녀교우(만 50세 미만), 성녀 테레사
묵상기도학교 수료자(만 55세 미만)
문의 : 010-3867-8209

한티순교성지 피정

[산책기도] 주제 : 쉬는 하루
· 8.21(월) 10:00~16:00
강사 : 김형수 신부(한티피정의집 부관장)
[순례음악] 주제 : 그대 어디로 가는가
· 8.26(토) 16:00~27(일) 13:00
진행 : 홍경혜, 홍승란 / 문의 : (054)975-5151

병자들을 위한 치유세미나

· 9.16(토) 11:00~17(일) 16:00
· 음성 꽃동네사랑의영성원 / 회비 : 5만원
대상 :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 내용 :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 및 안수
문의 : 010-5490-5345(어린이 동반금지)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10.2(월)~14(토) · 로마, 루르드, 산티아고, 파타미
성모성지, 이태리, 스페인 순례 / 490만원 4석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2017년 2학기 사이버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모집 : 9.30(토)까지 / 대상 :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신분
문의 : (031)8017-4239, cyberbible.casuwon.or.kr

<p>2018학년도 수시 대비 입학사정관-학부모 브런치 상담</p> <p>일시, 8/29(화) 14:00~ 장소, 부산가톨릭대 대학본부관 제1국제회의실 신청 : 8/14(월)~22(화) 유선(510-0706), 이메일(pungshock@cup.ac.kr)</p> <p>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p>	<p>부산성모병원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개시</p> <p>이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 원내 1층 '접수·수납' 맞은편 발급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67종 혜택 : 대기시간 단축 및 수수료 감면(50%)</p> <p>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p>	<p>가톨릭선업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p> <p>2017광민창의문화촌 "설레임"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작품展</p> <p>일시, 8/22(화)~30(수) 장소, 가톨릭센터 마음발갤러리 팍팍한 일상에 스며들어온 씨실 하나가 전해주는 작은 설레임</p> <p>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p>
--	--	--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아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p> <p>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수맥과 건강</p> <p>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해도 효과를 못 보시는분, 문의 환영</p> <p>사무실 517-3233 서촌북(발바네) 010-3862-6834</p>	<p>양지공인중개사 사무소</p> <p>명지오션시티에 있는 양지부동산은 바른 생각과 정직한 매물로 고객님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드리는 부동산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p> <p>임 선 주 (모니카) 010-2428-4680, 201-7500</p>	<p>대동병원 무릎관절센터</p> <p>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 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p> <p>동래 전철역 옆 554-1233 www.ddh.co.kr</p>	<p>해충 방역 소독 약취완전제거</p> <p>허정희(토마스) 010-9689-8119 (NAVER : 바이빅스)</p>
<p>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p> <p>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층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p>	<p>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p> <p>독일 LIEBHERR, MK80, 88, 100, 110, 등 MK80-마스타30M 펌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펌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펌52M엔드 1.8톤작업</p> <p>장비임대, 현장답사(상담환영) 1833-6368, 010-3831-2403 심현진 (프란치스코)</p>	<p>재활전문 수요양병원</p> <p>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p>	<p>라파엘 여행사</p> <p>9/11 성모님 발현지 13일 389만원 9/19 이스라엘 9일 380만원 10/19 산티아고 도보순례 14일 389만원 10/24 발칸, 크로아티아 11일 359만원</p> <p>성지순례 (02)778-8565</p>	<p>독일보청기</p> <p>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공, 일반90%혜택)</p> <p>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글라라) * 교우특별할인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p>